



침실에 붙은 3가지 지도를 보면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보이사 오영택

세계지도, 아세아지도, 우리 나라 전도가 침실 한 면을 꼭 메우고 있다. 침대에 누워서 벽면에 붙어 있는 지도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 아내는 필자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붙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 세계지도를 보면 중국대륙에 붙어 있는 한반도가 보인다. 아세아 지도를 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태평양)에 둘러 쌓인 지형이다.

“우리 나라 지도” 라고 하지 못하고 남북한을 합쳐서 “우리 나라 전도” 라고 지적회사에서 명명한 지도를 보게 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침실에 들어설 때마다 지도들은 나와 함께 있다. 누워 있을 때면 더욱 선명히 3가지 지도가 눈에 들어온다. 러시아가 KAL기에 대해 미사일 공격했던 것이 생각날 때면 3개의 지도들을 번갈아 보게 된다. 한반도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는 그 위치 그대로이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니, 우리 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협상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기사화 된 우리 나라 대통령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의 만남의 내용보다도 사

진 찍으려고 자리를 잡으면서 취하는 우리 나라 대통령의 거동과 타국 정상들과의 스쳐가는 인사 장면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이 보이는 것 같다.

아마도 남북 통일이 되는 날이면 우리 나라 대통령의 악수장면까지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을 것이며, 벽 한 면을 지도로 꽉 채워서 아내가 이상한 남편으로 보는 3가지 지도들도 없어질 것이다.

정상들과의 만나는 장면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의 인사에 있어 중국 측에서 포옹인사를 하지 않으려는 사건이라든가, 2002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어색한 인사 등은 기사화 되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5월에 미국 순방 중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바라보며, 약소 국가의 대통령이기에 등을 두드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마다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보게 된다.

그러나, 2003년 9월 말경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캠프데이비드 공동 기자회견 후에 부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는 장면이 비쳤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시 후진 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 타오 국가주석의 두 손을 꼭 잡는 인사였다. 후진 타오 국가 주석은 한 손으로 악수를 했다. 우리 나라의 인사는 가까운 사람끼리 두 손을 꼭 잡는 인사를 나누며, 두 손을 내미는 쪽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나 그간의 관계에서 고맙고 또한 부탁할 일이 있을 경우에 하는 인사법이다. 한편, 일본, 러시아,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서 두 손을 내밀 수 있을까?

2003년 10월 APEC 방콕회의에서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노무현 대통령의 두 손을 꼭 잡는 장면이 보

였다. 노 대통령도 두 손을 내밀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고이즈미 수상의 포용력과 인정미를 한 눈에 보여준 것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어려운 난제들이 풀릴 것 같다.

앞으로 관심이 가는 인사의 장면은 후진 타오가 남북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인사를 택하느냐가 필자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제4세대인 후진 타오가 전임자들 같이 우리하고는 악수를 하고, 북한과는 껴안는 인사를 고수할 것인가?

우리 나라 대통령이 두 손을 내밀 때 한 손으로 악수할 것인지, 아니면 두 손으로 같이 악수할 것인지 등등...

